

[경제]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전망

年 일자리 창출 30만개 어렵다

인구 증가율 둔화 영향

정부가 2004년 이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내놓은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단기내내 경제활동참가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자리가 매년 30만개 이상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KDI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07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올해에 비해 1.1% 증가한 3천916만명이라며 내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업자도 1.1%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예상 취업자수가 2천316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일자리 증가 수는 25만개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DI는 내년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0.12%포인트 이상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0.2%포인트 이상 하락해야 하지만 과거 추세나 내년 경기전망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30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원은 "내년에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2004년처럼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급증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내년 일자리 창출 수준은 25만~30만개가 현실적인 목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년 성장률 4.4%

10월 전망보다 0.1%P 상향

환율변동성은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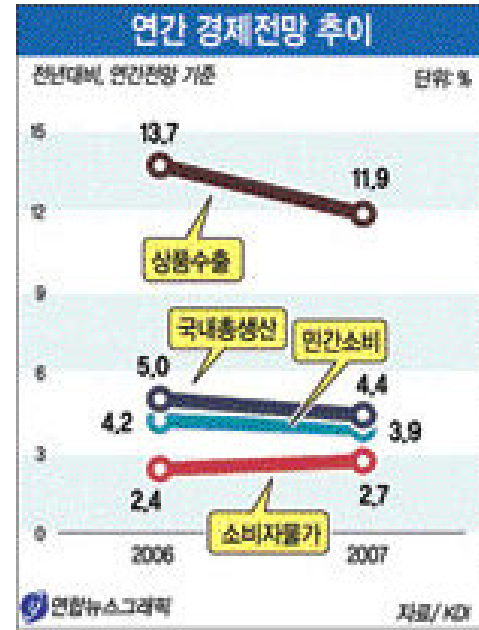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환율 하락세 속에서 급증한 단기외채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4.3%보다 0.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KDI는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우려 완화, 북한핵 문제 등 하방위험의 축소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직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9%, 설비투자 증가율은 0.6%포인트 상승한 7.6%, 경상수지 적자는 10억달러 줄어든 4억달러,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3.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



인트 낮은 2.7%로 각각 조정했다.

KDI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완만하게 둔화되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車도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보험상품 설명 일상용어로

2007년부터 보험제도 달라져

내년부터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개선되고 자동차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등 보험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5일 '2007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뀌고 글자 크기가 커지며 소비자들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요약서가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무사고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화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또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당모델별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일시납,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연납으로 제한된 보험료 납입 주기도 폐지돼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다. 지금은 연액유니버설보험만 보험료 수시 납입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는 또 내년 1월중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대상상품을 확대하고 암보험 및 특약에 대한 상품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기간 중 암보험 등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제도'가 도입되며 보험사 대출상담사의 협회등록제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2금융권 주택대출 첫 60조원 돌파

올해 들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국회 정부위 소속 안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27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말(243조2천억원)에 비해 12.8%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대출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213조8천억원으로 지난 2000년(54조8천억원)의 5배 수준이며,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131조3천억원)에 비해서도 6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 지난달말 현재 대출잔액이 60조5천8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올 1월 3천억원에서 지난달말 9천90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4천500억원에서 5조600억원으로 13%나 증가했다.

또 같은기간 새마을금고는 8조1천400억원에서 8조7천300억원으로 7% 늘었으며, 보험사는 13조6천500억원에서 13조8천800억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말 현재 2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 확대 재해 사망 위로금 3,500만원으로

농민들이 농사 일을 하다 다치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작업 재해 사망시 유족 위로금을 현행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일반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80% 이상 노동력을 잃었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공제금도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작업 재해 및 누적 외상성 질환의 입원 공제금 역시 하루 1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1인당 공제료도 한 해 4만6천140원에서 5만4천원으로, 1인당 국고지원액도 2만3천70원에서 2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1인당 공제료 증가율(14%)보다 전체 보상수준 증가율(40%)이 더 높아졌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스타타워' 내년 1월 광주서 분양

부동산 임대수익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중인 '섹션 오피스'와 '서비스 레지던스'가 혼합된 형태의 '스타타워'가 내년 1월 광주에서 분양된다.

'스타타워'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들어서는 오피스빌딩으로, 총 14층 가운데 3~7층은 맞춤형 '섹션 오피스'로, 8~14층은 '서비스 레지던스' 상품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섹션 오피스'란 업무용 빌딩을 작게 쪼개 분양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자금 여력에 따라 10~100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레지던스'는 호텔 서비스에 아파트 제반 시설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공간이다. 문의 062-385-95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7년 '굿바이 어워드' 선정 '지펠 콤팩트' 삼성전자의 4도어 독립냉각 양문형냉장고 '지펠 콤팩트'가 미국의 유명 소비자정보 조사기관 겸 잡지인 '굿하우스킹' (Good Housekeeping)이 선정한 2007년 '굿바이 어워드'(Good Buy Awards) 제품으로 최근 뽑혔다. 남녀 도우미들이 지펠 콤팩트의 문을 열어 보이며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부동산 광풍' 예·적금 깬다

10월 저축성예금 회전율 1.4 ... 사상 최고

주택대출도 급증

10월 저축성예금 회전율이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데다 11월 부동산 대책에 겁먹은 소비자들이 10월에 긴급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적금상품을 앞다퉈 해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회전율은 1.4로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5년 1월 이후 올 10월까지 매월 회전율의 평균치는 0.8로 10월의 절반수준

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10월의 1.4에 가장 가까운 수치는 10년여전인 1998년 12월에 기록된 1.2였다.

예금 회전율은 예금지급액을 예금평균잔액으로 나눈 개념이다. 1.4는 예금지급액이 예금평균잔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예금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자금회전이 급속하게 늘었다는 의미다.

저축성예금의 일종인 정기적금·저축예금·정기예금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10월 정기적금 회전율은 0.2로 1998년 6월의 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기적금 회전율이 0.2이상 올라간 것은 1985년 1월 이후 262개월 중 6개월에 불과했다.

10월 저축예금 회전율은 2.5로 1998년 12월의 3.5 이후 최고치였으며 정기

예금 회전율도 0.2로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예·적금 해약률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10월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의 월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보면 올 8월 0.2%, 9월 0.5%, 10월 1.3%, 11월 3.1%를 기록했다. 10월부터 주택가격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0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7천억원으로 급증세를 타기 시작했다. 즉 예·적금을 해약한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동일한 자금도 모자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소 '우후죽순'

4년간 60% 급증 ... 종사자도 10만명 넘어

2001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진행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팽창' 현상이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업

체는 모두 6만1천199개로, 4년 전인 2001년 말의 3만8천93개에 비해 60.7%나 늘었다.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에서 3%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업

체 약 30개 가운데 1개는 부동산중개소인 셈이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수도 6만5천24명에서 10만3천556명으로 4년 만에 59.3% 급증했다.

분양회사 등이 속한 부동산 임대·공급업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업체 수는 2001년 4천531개에서 2005년에는 7천470개로 64.9% 늘었고, 이 업종의 종사자 수도 3만6천635명에서 5만2천159명으로 42.4%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통신 리콜제' 내년 상반기 도입

품질저하 피해 보상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를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통신리콜' 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통신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위의 규제정책이 요금 과다 청구나 부당한 부가서비스 꺼내기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형대권 통신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IT강국에 맞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며 "통신서비스들이 속도, 통화품질 등에서 제값을 하는지 서비스 품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통신위의 품질검사, 소비자 신고, 통신업체별 자체평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대우건설	각 분야별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29	02-2288-5150
부산태일시스템	기술직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30	062-383-5340
양원기술공사	환경영향평가 직원 모집	대졸/경력4년	4000~5000	12/30	062-251-8845
한국금융기술네트웍	[전남광주] 은행365자동화코너 장애처리요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30	053-941-8859
㈜바이오포트	웹기획/웹디자인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974-0284
㈜참나무니케이션	광고컨설팅/광고 기획 및 제작/광고 카피라이터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651-9670
윤선생영어교실	[영어도육명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62-526-0665
신성하이텍(주)	[생산/품질/영업관리/생산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62-952-1441
㈜한진기공	2007 정규직 기계설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2/31	062-953-1642
㈜광주삼정기업	제품출하 관리 및 납품지인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943-2818
㈜보고정보	2007년 신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1-722-9035
노블레스	호텔 프론트 캐셔, 룸클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385-1100
㈜대건정공	건축설계직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62-383-4010
㈜나경인터내셔널	무동파코호텔 프린트(여)/전기(직)신입)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226-00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